

안전한 휴가철 위한 기초질서 확립

무주군, 주요 관광지 질서 유지·안전사고 예방·불법행위 근절 등 총력

무주군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구천동 계곡과 칠연계곡 등 관내 관광 명소들에 대한 기초질서를 확립시킨다고 밝혔다.

주요 관광지가 속해 있는 지역(설천, 안성면)과 관광특구에 대한 ▲식품위생 및 쓰레기 대책, ▲도유지를 비롯한 물가·교통·육외광고물·하천 관리, 그리고 ▲조정 및 지원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췄으며 무주경찰서와 국립공원 덕유산관리사무소, 구천동 관광·식당·숙박연합회, 관광협의회 등이 협력해 ▲질서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 ▲불법행위 근절, ▲방문객 편의 증진에 주력하고 있다.

무주경찰서에서는 상습 병목구간에 대한 소통대책, 불법주차 합동 지도·단속, 범죄 취약지구 순찰강화 협조를

구했으며 국립공원 덕유산관리사무소에는 덕유야영대를 방문하는 차량에 대한 소통 대책을 요청했다.

구천동 관광·식당·숙박연합회에는 가격표시제 이행과 불법 주차차 유도 금지, 영업 시 평상·돛자리·텐트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 근절 등에 대한 자정노력을 당부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8월 말까지 합동지도 단속반과 쓰레기 기동 수거반을 운영하고 교통대책 및 질서유지 요원을 주요 장소에 배치해 교통 혼잡을 막고 불법시설물·광고물과 노점상 등을 정리할 계획이다. 바가지요금 등 상거래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이어가게 된다.

이밖에도 청소·위생·상하수도 관리에 집중하는 한편,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소독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상황 점검에 철지를 기한다. 또 물놀이 안전사고와 주요 등산로 및 산책로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계곡·하천 주변에서의 취사행위를 막는데도 집중할 방침이다.

설천면 소재 구천동 관광단지 내 안내소에서는 무주군 관광안내사(1일 2명)가 상주하며 관광지와 시설 등을 안내하고 숙박 예약을 돕는다.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김영광 팀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창궐을 막기 위해서도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며 "휴가철인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역도, 주민도, 방문객도 모두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반디랜드 야외 물놀이장 개장

내달 29일까지 철저한 방역·안전관리원 배치

여름방학을 맞아 신나는 물놀이 공간으로 꼽히는 무주 반디랜드 야외 물놀이장이 지난 10일 개장했다.

다음달 29일까지 운영하는 반디랜드 야외 물놀이장은 반디랜드를 찾은 관람객들과 어린이들이 이용 가능하며,



무주 반디랜드 야외 물놀이장이 지난 10일 개장했다.

최대 인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브레이크 타임(12:00~13:00)을 이용해 물놀이장 내 공동 이용 시설(샤워실, 탈의실) 등의 방역을 실시한다. 풀장 수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수상인명구조요원과 간호조무사 등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했다.

반디랜드 야외 물놀이장은 767.36㎡ 규모에 인공폭포와 유아용 및 성인용 풀장 각 1조와 탈의실과 화장실, 샤워장, 관리동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입장객 발열체크, 전자인증(QR코드), 손소독제 비치, 수영복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부대시설 이용 시 거러두기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야외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다.

1일 이용료는 성인 8천 원, 청소년 7천 원, 어린이(4세~초등생) 6천 원이며 20인 이상 단체는 성인 6,400원, 청소년 5,600원, 어린이(4세~초등생) 4,800원이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무주군에 주소를 둔 이용자의 경우 사용료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활동 전개

진안군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이뤄질 수 있는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군은 최근 집중 호우 시 축산농가나 각 사업장에서 불법행위와 폐수 무단 방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3개조 6명으로 구성된 특별 감시반을 편성하고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공무원이 부재중인 심야 및 휴일 시간대를 노리고 불법행위가 이뤄지기에 그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집중 호우시에는 야간 감시활동을 확대와 함께 비밀배출구를 이용

한 저장조 내 폐수나 가축분뇨 무단방류 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실비의 오작동이나 증대된 실수 등 사유에 상관없이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와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나 조업 중지 등 엄중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누리파크 '장수밥상' 오픈

15일부터 단체석·어린이 놀이방 등 편의시설 갖춰 영업 시작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된 장수누리파크 내에 위치한 가족단위를 위한 건강한 식당 '장수밥상'이 이달 15일부터 문을 연다.

13일 장수군에 따르면 장수시니어클럽(관장 김숙희)이 운영하는 장수밥상은 장수군 농촌관광활성화와 어르신 일자리 제공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올해 4월 장수군과 협약을 체결해 메뉴 개발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달 15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장수밥상은 어린이,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장수누리파크 특성을 살려 넓은 단체석과 어린이 놀이방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특히 시니어 클럽 소속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돈가스과 소바, 우동, 순두

부찌개 등 건강식으로 메뉴가 구성돼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영업시간은 7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8월 이후로는 주말까지 영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익금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지원돼 어르신들의 경제·사회적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된다.

류지봉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장수밥상 운영을 통해 누리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건강식과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농촌관광 및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바라본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유기홍 장수군의원, '장수읍 용계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장수군의회 유기홍 의원은 13일 제328회 임시회에서 장수읍 용계선 농어촌도로 정비 방안 마련에 대해 군정질문을 했다.

유기홍 의원은 장수군 리도 213호로 지정된 약 3.7km의 용계선 농어촌 도로가 용계리 양양마을 주민의 생활도로이자 인근 500여ha 농지의 경작지가 이용하고 있는 중요한 도로임에도 도로의 폭이 3~4m에 지나지 않고 선형이 불량하여, 인근 주민 및 농업인들의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노선은 무진장축협 한우계열화사업소가 근처에 위치해 있어 사업장을 이용하는 축산농가, 축분 및 사료 등을 운송하는 대형차량의 이동이 일평균 300여대가 이동하는 도로로 이에 유기홍 의원은 지역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과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기반마련을 위한 정비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장영수 군수는 "편의용지에 대한 보상 등 행정적인 사전 절차를 거쳐 교통량 확보를 위한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을 검토하여 조속히 주민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청소년 대상 생명 지킴이 양성 교육

진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13일 관내 11개 중·고등학교 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생명 지킴이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고·듣고·말하기 교육으로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개발하고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자살위기가 보내는 언어, 행동, 상황적 위험신호를 인식해 알아차리기(보기), 죽음의 이유와 삶의 이유(듣기), 안전점검 목록 확인을 통한 자살 위험성 평가 및 전문가 연계하기(말하기)를 거쳐 소중한 가족, 이웃, 친구, 동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 및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진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 지킴이(Gate Keeper) 양성 전문강사가 직접

교육을 진행했으며 수료한 학생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생명 지킴이로서 청소년기 비슷한 성장 과정에 있는 주위 친구들의 자살위험 신호를 파악해 조기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정신건강복지센터(430-8529)와 연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된다.

군 담당자는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자살 고위험군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진안군은 13일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등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0억8000여만원(1만 1781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특례 적용(0.05%p 인하)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등에 따른 건축물분 재산세 세액 증가로 전체 부과액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경우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서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으로 납세자들의 주택 재산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체리농가와 간담회

진안군은 13일 전춘성 군수, 관내 체리농가를 비롯한 군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안산 체리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급격한 수입산 체리 수입증가 및 체리 소비객 증가로 인한 성장 잠재력이 큰 진안군 체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농가들은 체리 배 배 시설 및 식재비 지원 확대, 노동력 감소를 위한 무인방제기 지원 등 의견을 제시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고원 체리는 수입산 체리에 비해 식감이 부드럽고 맛도 좋다"며 "체리를 새로운 특산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 및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